



박지성 부상 심각 ... "1년간 못뚫는다"

맨유 길 사장 "미 의료진 검사중"

지난해 9월 발목 수술 후 또 시련

맨유, 7월 방한 서울FC와 친선경기 갖기로

‘과워 엔진’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게 가장 큰 시련이 닥쳤다.

정밀검사 결과와 구단 공식 발표가 나와야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있겠지만 영국 언론은 27일(한국시간) 박지성이 무릎수술을 받고 최악의 경우 1년간 재활과정을 거쳐야 할 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2000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일본프로축구 J리그 교토 퍼플상가에서 뛰던 박지성은 유럽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큰 부상없이 선수 생활을 했다.

첫 시련은 거스 히딩크 감독을 따라 PSV 에인트호번에 입단한 직후인 2003년 1월에 찾아왔다.

오른 발목을 다쳤고 두 달 뒤인 2003년 3월엔 오른 무릎 연골관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번 부상도 4년 전 수술을 한 이 부위에 피로가 쌓이면서 재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3월엔 왼 무릎에 피로 누적으로 통증을 호소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발을 내디딘 2005년에 거의 부상없이 시즌을 소화했다.

‘산소 탱크’, ‘과워 엔진’이란 별명이 붙은 것도 쉽없이 90분을 뛰어다니는 강철 체력과 심장 덕분이었다.

그러나 작년 독일월드컵축구를 전후해 부상이 잦아졌다.

아드보카트호가 스코틀랜드에서 한참 훈련하던 작년 5월 왼 발목 염좌로 며칠 쉬었다. 하지만 월드컵을 앞둔 상황이라 곧장 팀의 부름을 받았다. 박지성은 월드컵 본선 프랑스전에서 골을 터트리는 등 활약했으나 작년 9월 오른 발목을 접질려 또 쓰러졌다.

그리고 발목 인대 집합 수술을 받았다. 생애 두 번째 수술. 99일을 쉬고 작년 12월 복귀한 박지성은 이번 시즌 5골을 뽑아내며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가장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골 감각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1일 블랙번전에서 다시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한 경기에서 당한 불운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피로가 누적돼 찾아온 부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데이비드 길 맨유 사장은 27일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 2층 에머랄드룸에서 열린 맨유-FC서울 친선경기 기자회견에서 “박지성은 현재 미국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진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다.

그의 부상은 본인은 물론 맨유와 한국축구에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그가 젊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길 사장은 박지성의 수술 여부나 그라운드 복귀 시기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려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맨유는 7월18일 3부4일 일정으로 방한해 7월2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친선경기를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베이징올림픽 성화봉

2008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 공식후원사인 레노버는 27일 중국의 전통 두마리 족자와 구름을 형상화한 성화봉 ‘약속의 구름 (Cloud of Promise)’을 공식 발표했다.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 전체 색상은 진한 적색과 밝은 은색이 고유의 문양에 섞여있다. /연합뉴스

“내년 고흥에서 만남시다”

강진 도민체전 폐막 ... 여주시 종합우승·광양시 2위

여주시가 제46회 전남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42회부터 44회까지 대회3연패를 달성했으나 지난해 순천시에 1위를 내줬던 여주시는 폐막일인 27일 타구에서 우승. 유종의미를 거두며 종합점수 3만2천525점으로 여유있게 1위에 올랐다. 2위는 광양시(3만425점)가 차지했고, 다음으로 3위 목포시(2만9천450점), 4위 강진군(2만7천775점), 5위 보성군(2만7천750점), 6위 순천시(2만6천100점), 7위 영암군(2만5천950점) 순이었다.

특히 완도군은 지난해 19위에서 11위로, 강진군은 10위에서 4위로, 신안군은 12위에서 8위로 등위를 앞당겨 성취상을 받았다.

모범선수단에는 나주시선수단이, 모범경기단체는 전남배구협회가 선정됐다.

최우수선수상은 육상 남자 400m, 800m, 400릴레이에서 우승, 3관왕을 차지한 김성관(광양시)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김달은(여수)과 정다래(여수)가 수영에서 각각 4관왕에 올랐고, 이미영(해남), 김고은(여수)이 육상과 수영에서 각각

3관왕에 올랐다. 단체종목의 경우 축구는 강진군이 정구는 순천시, 배구 보성군, 탁구 여주시, 배드민턴 화순군, 유도 여주시, 씨름 여주시, 검도는 무안군에게 우승기가 돌아갔다. 내년 대회는 고흥군에서 열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지에 시즌 첫 우승

KLPGA 엠씨스퀘어컵

작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5관왕 신지에(19·하이마트)가 엠씨스퀘어컵 크라운CC여자오픈에서 7타차 열세를 뒤집는 극적 드라마를 연출하며 시즌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신지에는 27일 제주 크라운골프장(파72·6천30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이주은(30·보그나)과 18번홀(파5·497야드)에서 치른 연장 첫 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컵에 입맞쳤다. /최재호기자 lion@



골프 황제의 망중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2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미 프로농구 올랜도와 디트로이트의 경기를 그의 부인 엘린과 함께 관전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단평행봉의 마술사

독일의 옥사나 추소비티나가 2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체조챔피언십 여자부 이단평행봉에서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재응 ‘최악’ 제국 ‘패투’

서, 6실점 20닝도 못버텨 ... 류, 40닝 무실점

서재응(30·렘퍼베이 테블레이스)이 연승 길목에서 최악의 피칭으로 체면을 구겼으나 같은 팀의 구원 투수 유제국(24)은 40닝 무실점 패투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추신수(25·클리블랜드 인디언스)도 이틀 연속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의 불꽃 타격을 펼쳤다.

서재응은 27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에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LA 에인절스와 원정경기에 선발등판했지만 1¼이닝 동안 홈런 1개 등 7안타, 1탈삼진, 2볼넷으로 6실점으로 부진, 결국 팀이 3-11로 지면서 패전 투수가 됐다.

서재응은 지난 해 9월26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1¼이닝을 8실점했지만 선발로 나서 2이닝을 버티지 못하고 강판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즌 2패(1승)째를 기록했고 평균자책점은 종전 7.66에서 9.51로 치솟았다. 투구 수 49개 중 스트라이크는 28개에 불과할 정도로 제구력도 좋지 않았다.

22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서 첫 승리를 신고한 서재응이 2005년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수상자 바블로 폴론(34)과 선발 맞대결에서 연승을 노렸지만 에인절스 강타선에 난타를 당하며 무너졌다.

서재응과 한술밥을 먹고 있는 후배 유제국은 위력적인 피칭으로 코칭스태프의 눈도장을 받았다.

2-11로 크게 뒤진 5회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한 유제국은 첫 타자 우드를 삼진으로 잡는 등 3명의 타자를 범타로 처리했고 6

회에도 개레로를 3루 땅볼로 돌려세우며 2이닝 연속 삼자범퇴 행진을 했다.

유제국은 7회 윌런브랜드에게 첫 안타를 허용했지만 병살타와 삼진으로 위기를 넘겼고 8회도 삼자범퇴시켜 깨끗하게 마무리했다.

추신수도 이틀 연속 안타 2개 이상을 때리는 호조의 타격감을 이어갔다.

이날 텍사스 레인저스와 경기에 좌익수 겸 7번 타자로 선발 출장한 추신수는 4차례 타석에 등장, 2개의 안타를 날리며 2타점을 올렸다.

이틀 동안 4개의 안타를 뽑아낸 추신수는 시즌 타율이 종전 0.383에서 0.385(13타수 5안타)로 좋아졌다.

추신수의 활약을 앞세운 클리블랜드는 9-4로 이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8일(토)

▲K리그(광주-인천)(14 : 50·SBS스포츠, 14 : 55·MBC, 15 : 00·KBC)

▲프로야구(삼성-현대)(16 : 30·KBSN Sports), (KIA-한화)(16 : 50·SBS스포츠)

▲일본프로야구(야쿠르트-요미우리)(18 : 00·MBC ESPN)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버튼-맨체스터Utd)(21 : 30·MBC ESPN), (미들즈브로-토트넘)(23 : 00·MBC ESPN)

29일(일)

▲PGA투어 EDS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 3R(05 : 00·SBS스포츠)

▲K리그(서울-경남)(14 : 50·SBS스포츠, 15 : 00·KBSN Sports·MBC ESPN)

▲프로야구(두산-롯데)(13 : 10·KBS1), (KIA-한화)(16 : 50·SBS스포츠), (삼성-현대)(17 : 00·KBSN Sports)